

아동영어교육전공 대학생의 자아존중감, 전공만족도, 진로정체감 및 대학생활적응간의 관계

김윤주*, 김윤영**, 이송미*
동신대학교*, 광양보건대학교**

The Relationships among Self-Esteem, Satisfaction with Major, Career Identity and University life adjustment of University Students in the Department of Children's English Education

Yun-Joo Kim*, Yoon-Young Kim**, Song-Mi Lee*
Dept. of Children's English Education, Dongshin University*
Dept. of Nursing, Gwang Yang Health College**

요 약 본 연구는 D대학 아동영어교육학과 재학생 88명을 대상으로 자아존중감, 전공만족도, 진로정체감 및 대학생활적응과의 관계를 조사하였으며, 수집된 자료는 IBM SPSS Statistics 22를 이용하여 신뢰도분석, 요인분석, 빈도분석, 기술통계량, t-검정과 분산분석, 상관분석,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자아존중감, 진로정체감, 전공만족도 및 대학생활 적응 간에는 모두 유의한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대학생활과 가장 상관관계가 높은 것은 자아존중감, 전공만족도, 진로정체감 순이었다. 대학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자아존중감($\beta=.664, p=.000$)과 전공만족도($\beta=.349, p=.000$)이었다. 아동영어교육학과 재학생의 대학생활 적응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자아존중감, 전공만족도를 증진하기 위한 아동영어교육학과 특성에 맞는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프로그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주제어 : 아동영어교육, 자아존중감, 전공만족도, 진로정체감, 대학생활적응, 융복합 교육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argeting 88 students in the department of English education for Children, D University, to examine the relationships between self-esteem, major satisfaction, career identity, and university life adjustment. A survey was performed, and collected questionnaires were analyzed with IBM SPSS Statistics 22 using reliability analysis, factorial analysis, frequency analysis, descriptive statistics, t-test, variance analysis, correlation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self-esteem, career identity, major satisfaction and career identity had high correlations with university life adjustment, in order. Self-esteem ($\beta=.664, p=.000$) and major satisfaction($\beta=.349, p=.000$) influenced university life adjustment. In order to raise the university life adjustment ability of students in the department of English education for children, it is needed to develop systematic and specific programs for improving self-esteem and major satisfaction.

Key Words : Children's English Education, Self-Esteem, Major Satisfaction, Career Identity, University Life Adjustment, Convergence Education

Received 21 July 2015, Revised 31 August 2015
Accepted 20 September 2015
Corresponding Author: Lee, Songmi
(Dept. of Food and Nutrition, Dongshin University)
Email: smlee@dsu.ac.kr

ISSN: 1738-1916

© The Society of Digital Policy & Management. All rights reserved.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1. 서론

현대 글로벌시대는 정보화사회로서 국제간의 활발한 의견교류를 위한 영어의 중요성은 날로 증대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1997년도에 영어가 초등학교 3학년 정규 교과목으로 채택된 이래 학부모의 높은 관심과 더불어 유아기에 조기교육을 시킴으로써 교육효과를 높이고자 취학이전 아동에 대한 영어교육이 유치원, 어린이집 및 사설학원 등에서 실시되고 있다. 육아정책연구소에서 2014년도 12월에 발표한 영유아 교육·보육비용 추정연구Ⅱ에 따르면 정부의 자녀양육비 부담완화 정책으로 말미암아 영유아 부모의 교육·보육비용은 크게 줄었으나 사교육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보고하였다[1]. 이에 따르면 우리나라 영유아 총 사교육비 규모는 2014년 5월 기준으로 3조 2,289억원으로 GDP 대비 0.23%이며, 영아는 5,157억원, 유아는 2조 7,131억원으로 이는 2013년 수준보다 영아 3.4%p, 유아 21.1%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집 아동 중 특별활동에 76.7%가 참여하고 있었는데 영어 과목은 84.3%로 가장 높았고, 유치원 아동 중 특성화활동에 67.1%가 참여하고 있었는데 영어과목은 62.8%로 가장 높았으며, 또한 반일제 이상의 학원을 이용하는 경우는 조사대상의 2.6%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이 중 영어학원이 54.3%를 차지한 것으로 조사되어 유아 사교육비 중 영어교육비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기는 인격과 언어 구체화 능력이 형성되는 중요한 시기로서 이들에 대한 영어교육은 단순히 영어전공 한국인 교사나 원어민 교사, 또는 유아교육만을 전공한 교사에 의해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아동의 발달단계별 발달특성을 잘 이해하고 정확한 영어관련 지식과 학습역량을 갖춘 인성적인 자질을 바탕으로 형성된 교사에 의한 전문적인 아동영어교육 실행이 필수적이다. 이러한 요구에 힘입어 전국에 유아·아동영어교육학과가 신설되기 시작하였으며, 이와 관련된 4년제 대학은 현재 총 5곳이 설립되었다. 아동영어교육학과는 보육을 전공하고 아동영어교육의 이론과 실무를 학습시켜 조기영어교육의 높이에 맞출 수 있는 전문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하여 운영되고 있다. 대학생활에 성공적으로 적응한 학생들은 우수한 아동영어교사로서 추후 글로벌 시대에 적합한 조기영어교육을 효과적으로 담당할 수 있으리라고 본다.

자아존중감은 자신을 가치 있게 인식하는 정도와 자기 존경의 정도로서 자신에 대한 평가와 관련되어 있으며, 대학생활적응 뿐만 아니라 이후의 사회생활에도 유의한 영향을 주는 전 생애동안 작용하는 정서로서[2], 자아존중감을 나타내는 하위 요인은 타인과의 관계, 지도력과 인기, 자기존중, 자기주장 등이다[3,4]

진로정체감은 자신의 진로를 얼마나 명확히 인지하고 확신하고 있는지를 말하는 것으로, 진로목표(goal), 흥미(interest), 성격(personality), 재능(talents) 등에 명확하고 안정적인 상(picture)을 가진 상태를 의미한다[5]. 이는 진로의 안정성과 불안정성을 설명할 수 있는 변인으로 확고한 진로정체성을 가진 사람은 분명한 인생목표, 흥미, 기술 등을 가지고 자신의 성격과 일치하는 직업과 직업 환경에서 일하고자 노력한다[6].

전공만족도는 전공학과 교과과정을 개개인의 직업관 및 설정한 진로와 비교하고 평가하여 나타나는 개인적 결과로서, 소속된 학과가 자신의 이상이나 진로에 대한 기대와 일치하는 정도가 높을수록 전공만족도는 높아졌다[7,8]. 대학생활적응은 학생들이 학업면, 대인관계 및 사회적 요구와 관련된 사회면, 심리적 또는 신체적인 개인-정서면, 대학환경면에서 대학생활의 요구에 효율적으로 대처하는 적절한 반응을 뜻한다[9,10]. 자아존중감과 전공만족도 및 진로동기는 서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다고 나타났으며[11], 또한 진로정체감과 전공만족도는 대학생활적응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밝혀졌다 [12].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유아 사교육비 중 영어교육비는 계속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유아교육과 동시에 영어교육을 전공한 전문인력의 부족으로 인해 효율적인 조기영어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현실이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의해 유아교육과 영어교육을 병합하여 아동영어교육학과를 신설한 지 4년이 된 이 시점에서 재학생들의 자아존중감, 진로정체감, 전공만족도 및 대학생활적응의 관련성을 파악하는 연구를 통해 신설학과로서의 학과경쟁력을 제고해보고 학과발전 및 학생지도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으리라 사료된다.

2. 연구내용 및 방법

2.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아동영어교육학과 재학생들의 자아존중감, 진로정체감, 전공만족도 및 대학생활적응의 관련성을 규명하는데 있다. 이와 같은 연구목적 달성을 위하여 2015년 6월 1일부터 6월 10일까지 D대학교 아동영어교육학과 재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연구자가 연구의 목적을 설명한 후 설문지를 배포하고 자기기입식으로 응답하게 하였다. 응답자는 95명이었는데, 불성실한 응답자를 제외하고 총 88명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2.2 연구도구

본 연구에 사용된 연구도구는 다음과 같다.

자아존중감 측정을 위해서는 Coopersmith[13]가 제작한 Self-Esteem Inventory를 강[14]이 변안한 것을 사용하여 5점 Likert 척도로 측정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이 척도는 자기존중(5문항), 타인과의 관계(7문항), 지도력과 인기(6문항) 및 자기주장(7문항)의 4개의 하위척도로 구성되어 있는데, 타인과의 관계에 해당하는 문항 중 1문항과 자기주장에 해당하는 문항 중 2문항의 내적일관성이 낮아 제외하고 22문항으로 측정하였다. Coopersmith [13]의 연구에서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r=.88$ 이었으며, 강[14]의 연구에서도 검사-재검사 신뢰도가 $r=.86$ 이었다. 이 연구와 비슷하게 5점 만점으로 변환하여 측정된 김[3]의 연구에서 Cronbach's α 는 .89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84이었다.

진로정체감은 Holland, Daiger, Power[15]가 개발한 진로상황검사(MVS, My Vocational Situation)의 정체감 척도(Identity scale) 18문항을 김[16]이 변안하고, 권과 김[17]이 간호대학생에 맞게 14문항으로 수정·보완한 도구를 연구자가 아동영어교육학과 학생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5점 Likert 척도로 측정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진로정체감이 높은 것을 나타낸다. 신뢰도 분석 및 요인분석 결과 신뢰도 및 요인 적재량이 낮은 2문항을 제외하고 사용하였으며, 3개의 하위요인으로 구분할 수 있었는데, 각각 목표(7문항), 흥미와 재능(3문항), 진로정보(2문항)로 명명하였다. 김[16]의 연구에서 Cronbach's α 는 .89이었고, 권과 김[17]의 연구에서 Cronbach's α 는 .88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88이었다.

전공만족도 도구는 김과 하가[7] 미국 일리노이대학에서 개발한 프로그램평가조사(Program Evaluation Survey)의 내용을 바탕으로 학과만족 척도를 34문항으로 구성하였는데, 이 중 이[18]가 전공만족 관련 18문항을 추출하여 수정 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전공에 대한 일반적인 만족 6문항, 전공에 대한 사회적 인식에 대한 만족 6문항, 교과에 대한 만족 3문항, 교수-학생간의 관계만족 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로 측정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전공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이[18]의 연구에서 Cronbach's α 는 .90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95이었다.

대학생활적응도구는 Baker와 Siryk[9]이 개발한 대학생활적응(Student Adjustment to College Questionnaire: SACQ) 척도를 현[19]이 변안하고, 김[10]이 수정 보완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현[19]의 연구에서는 67문항을 9점 척도로 측정하였으나, 김[10]의 연구에서는 5점 척도로 변환하여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학업적응 24문항, 사회적응 30문항, 개인-정서적응 16문항, 대학환경적응 16문항의 4개의 하위척도로 나뉘는데, 대학환경적응 16문항은 사회적응과 8개 문항이, 학업적응과는 1개 문항이 각각 중복된다. 이 연구에서는 기숙사나 하숙, 자취생에게만 해당하는 3개의 문항을 제외하여 64문항으로 계산하였다. 이 도구는 5점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대학생활적응이 높음을 뜻한다. Baker와 Siryk[9]의 연구에서 Cronbach's α 는 .94이고, 현[19]의 연구에서는 .92이었으며, 김[10]의 연구에서는 .90이었는데, 본 연구에서는 .92이었다.

2.3 자료분석

본 연구의 수집된 자료는 IBM SPSS Statistics 22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척도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신뢰도분석 및 요인분석을 실시하였고, 요인분석시 회전방법은 베리맥스로 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빈도분석, 자아존중감, 진로정체감, 전공만족도, 대학생활적응의 기술통계량을 구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변수들의 특성을 비교하기 위해 t-검정과 분산분석을 실시하였고, Sheffe로 사후검정을 하였다. 변수간의 상관계수를 구한 후, 대학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찾기 위해서는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모든 검정의 유의수준은 .05로 하였다.

3. 연구결과

3.1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에서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Table 1>과 같다. 남학생이 17.0%, 여학생이 83.0%로 여학생의 비율이 월등히 높았으며, 학년별로는 1학년 28.4%, 2학년 28.4%, 3학년 25.0%, 4학년 18.2%이었다. 출신고교는 일반고의 문과 출신이 68.2%이었고, 일반고의 이과 출신이 20.5%, 전문계고 4.5%, 기타 6.8%이었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N=88)

| Characteristics | Categories | n(%) |
|---------------------------------|-------------------------------|----------|
| Gender | Male | 15(17.0) |
| | Female | 73(83.0) |
| Grade | Freshman | 25(28.4) |
| | Sophomore | 25(28.4) |
| | Junior | 22(25.0) |
| | Senior | 16(18.2) |
| Track of alma mater | Non-academic high school | 4(4.5) |
| | High school(Liberal arts) | 60(68.2) |
| | High school(Science courses) | 18(20.5) |
| | The others | 6(6.8) |
| Motivation of application | Aptitude or Interest | 44(50.0) |
| | Employment possibilities | 14(15.9) |
| | Academic standing | 11(12.5) |
| | Parents or Advice from others | 19(21.6) |
| Time of department selection | In high school | 32(36.4) |
| | Before application period | 20(22.7) |
| | Application period | 32(36.4) |
| | Change major or graduate | 4(4.5) |
| Prior knowledge of department | known well | 1(1.1) |
| | known a little | 45(51.1) |
| | known the name | 20(22.7) |
| | unknown | 22(25.0) |
| Post-graduation career decision | Daycare Center | 38(43.2) |
| | English academy | 2(2.3) |
| | Jobs related English | 27(30.7) |
| | Enter school | 6(6.8) |
| | Public official | 5(5.7) |
| | Change one's major | 1(1.1) |
| Not specific yet | 9(10.2) | |

아동영어학과를 전공으로 선택한 동기는 적성에 맞을 것 같아서가 50.0%이었고, 부모님 또는 주위의 권유로 21.6%, 취업전망이 좋을 것 같아서 15.9%, 성적에 맞추어 12.5%의 순이었다. 학과를 선택한 시기는 고등학교 재학 중 36.4%, 대입원서 접수기간 36.4%, 대입원서 접수 전 22.7%이었다. 학과에 대한 사전 지식 정도는 어느 정도 알고 있었다 51.1%, 전혀 알지 못했다 25.0%이었다. 현재

계획 중인 졸업 후 진로는 어린이집으로의 취업을 희망하는 경우가 43.2%로 가장 많았으며, 영어와 관련된 직종 30.7% 이었고, 아직 구체적이지 않은 경우도 10.2%로 나타났다.

3.2 응답자의 자아존중감, 진로정체감, 전공만족도 및 대학생활적응

본 연구에서 응답자의 자아존중감, 진로정체감, 전공만족도 및 대학생활적응은 <Table 2>와 같다. 응답자의 자아존중감 총점의 평균은 3.34점(±0.46)이었으며, 하위요인별로는 자기존중 3.20점(±0.66), 타인과의 관계 3.71점(±0.62), 지도력과 인기 3.34점(±0.54), 자기주장 3.03점(±0.57)이었다.

<Table 2> Descriptive Statistics of Self-esteem, Career Identity, Major Satisfaction, and University Life Adaptation (N=88)

| Category | Min. | Max. | Mean±SD |
|---|------|------|-----------|
| <i>Total Self-Esteem</i> | 2.45 | 4.64 | 3.34±0.46 |
| Self Respect | 1.20 | 5.00 | 3.20±0.66 |
| Relationships with others | 2.17 | 5.00 | 3.71±0.62 |
| Leadership & Popularity | 1.83 | 5.00 | 3.34±0.54 |
| Self-Assertiveness | 1.60 | 5.00 | 3.03±0.57 |
| <i>Total Career Identity</i> | 1.00 | 4.42 | 2.87±0.63 |
| Goals | 1.00 | 4.57 | 2.95±0.76 |
| Interests & Talents | 1.00 | 4.67 | 2.58±0.74 |
| Career Information | 1.00 | 5.00 | 3.01±0.75 |
| <i>Total Major Satisfaction</i> | 1.44 | 5.00 | 3.32±0.62 |
| General Satisfaction | 1.00 | 5.00 | 3.31±0.73 |
| Acknowledge Satisfaction | 1.00 | 5.00 | 3.18±0.73 |
| Curriculum Satisfaction | 1.00 | 5.00 | 3.37±0.70 |
| Student-Faculty Relation Satisfaction | 2.00 | 5.00 | 3.58±0.63 |
| <i>Total University Life Adaptation</i> | 2.24 | 4.23 | 3.16±0.41 |
| Academic Adaptation | 1.83 | 4.38 | 2.98±0.43 |
| Social Adaptation | 2.06 | 4.53 | 3.29±0.50 |
| Personal-Emotional Adaptation | 1.38 | 4.38 | 3.06±0.56 |
| University Environment Adaptation | 2.00 | 4.53 | 3.31±0.54 |

진로정체감 총점의 평균은 2.87점(±0.63)이었으며, 가장 높은 하위요인은 진로정보 3.01점(±0.75)이었고, 목표 2.95점(±0.76), 흥미와 재능 2.58점(±0.74)의 순이었다.

전공만족도의 총점의 평균은 3.32점(±0.62)이었는데, 가장 만족도가 높은 하위요인은 학생-교수간 관계 만족도로 3.58점(±0.63)이었고, 교과만족도 3.37점(±0.70), 일반만족도 3.31점(±0.73), 인식만족도 3.18점(±0.73)의 순

<Table 3> Level of Self-esteem, Career Identity, Major Satisfaction, and University Life Adaptation according to Subject's Characteristics (N=88)

| Variable | Categories | Self-esteem | | Career Identity | | Major Satisfaction | | College Adaptation | |
|-------------------------------|---------------------------|-------------|--------------|-----------------|---------------|--------------------|---------------|--------------------|---------------|
| | | Mean±SD | t or F (p) | Mean±SD | t or F (p) | Mean±SD | t or F (p) | Mean±SD | t or F (p) |
| Gender | Male | 3.28±0.51 | - .556 (579) | 2.78±0.72 | - .560 (.577) | 3.41±0.63 | .613 (.541) | 3.21±0.49 | .573 (.568) |
| | Female | 3.35±0.45 | | 2.88±0.61 | | 3.30±0.62 | | 3.15±0.40 | |
| Grade | Freshman | 3.28±0.37 | 1.031 (.383) | 2.95±0.75 | .862 (.464) | 3.16±0.63 | 3.444 (.020) | 3.11±0.33 | 1.167* (.333) |
| | Sophomore | 3.47±0.57 | | 2.71±0.65 | | 3.40±0.66 | | 3.30±0.55 | |
| | Junior | 3.29±0.44 | | 2.85±0.49 | | 3.15±0.49 | | 3.06±0.32 | |
| | Senior | 3.28±0.39 | | 2.99±0.55 | | 3.69±0.54 | | 3.16±0.36 | |
| Track of alma mater | High school(Liberal arts) | 3.35±0.47 | .424 (.673) | 2.82±0.61 | - .966 (.337) | 3.28±0.67 | - .923 (.359) | 3.15±0.40 | - .205 (.838) |
| | The others | 3.31±0.43 | | 2.96±0.66 | | 3.41±0.49 | | 3.17±0.45 | |
| Decision maker of one's major | Oneself | 3.39±0.43 | 1.000 (.320) | 3.03±0.51 | 2.203 (.030) | 3.41±0.63 | 1.143 (.256) | 3.23±0.42 | 1.438 (.154) |
| | Other/Media | 3.30±0.48 | | 2.75±0.68 | | 3.26±0.61 | | 3.10±0.40 | |
| Information of department | Known | 3.41±0.49 | 1.476 (.144) | 3.00±0.59 | 2.156 (.034) | 3.54±0.59 | 3.698 (.000) | 3.27±0.39 | 2.851 (.005) |
| | Unknown | 3.26±0.40 | | 2.72±0.64 | | 3.08±0.55 | | 3.03±0.40 | |

* Equal variances not assumed, Welch statistics was used.

이었다. 대학생생활적응의 경우에는 총점의 평균은 3.16점(±0.41)이었고, 적응 정도가 가장 높은 하위요인은 대학 환경 적응으로 3.31점(±0.54)이었고, 사회적응 3.29점(±0.50), 개인-정서적응 3.06점(±0.56), 학업적응 2.98점(±0.43)의 순으로 나타났다.

3.3 일반적특성에 따른 자아존중감,

진로정체감, 전공만족도 및 대학생생활적응

본 연구에서 응답자의 성별, 학년, 출신고교가 일반계 고등학교의 인문계열 여부, 전공 선택시 가장 영향을 미친 사람이 본인인지 타인인지에 따라, 학과에 대한 사전 지식 정도에 따른 변수들의 차이는 <Table 3>과 같다. 성별에 따라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변수가 없었으며, 학년별로는 전공만족도에서만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3학년(3.15±0.49)이나 1학년(3.16±0.63)에 비해 4학년(3.69±0.54)의 전공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출신고교가 인문계열인지 여부에 따른 차이도 없었으나, 전공을 결정할 때 자신(3.03±0.51)이 결정한 경우가 다른 사람이나 매체(2.75±0.68)를 보고 결정한 사람에 비해 진로정체감이 높게 나타났다. 학과에 대한 사전지식 정도에 따라서는 자아존중감을 제외한 진로정체감, 전공만족도 및 대학생생활적응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모두 학과에 대해 사전에 알았던 학생이 몰랐던 학생보다 높게 나타났다.

3.4 자아존중감, 진로정체감, 전공만족도 및 상관관계

본 연구에서 자아존중감, 진로정체감, 전공만족도, 대학생생활적응 간에는 모두 유의한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였다. 대학생생활적응과 가장 상관관계가 높은 것은 자아존중감($r=.748$)이었고, 전공만족도($r=.513$), 진로정체감($r=.399$)의 순이었다<Table 4>.

<Table 4> Correlations between Career Identity, Major Satisfaction, University Life Adaptation, Self-esteem and Academic Achievement (N=88)

| $r()$ p | Self-Esteem | Career Identity | Major Satisfaction | University Adaptation |
|-----------------------|---------------|-----------------|--------------------|-----------------------|
| Self-Esteem | 1 | | | |
| Career Identity | .249(.019)* | 1 | | |
| Major Satisfaction | .220(.039)* | .585(.000)*** | 1 | |
| University Adaptation | .748(.000)*** | .399(.000)*** | .513(.000)*** | 1 |

3.5 대학생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본 연구에서 대학생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먼저 자아존중감, 진로정체감, 전공만족도의 하위요인을 독립변수로 하여 각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회귀분석에 앞서 회귀모형의 가정을 만족하는지를 점검하였는데, Durbin-Watson 통계량은 2에 가까워 잔

차의 독립성 가정을 만족하였고, 공차한계가 0.1보다 작거나 분산팽창지수(VIF)가 10보다 큰 변수는 없어 독립변수들 간의 다중공선성도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자아존중감의 하위요인 중 대학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타인과의 관계($\beta=.301, p=.000$), 지도력과 인기($\beta=.358, p=.000$)이었는데, 지도력과 인기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더 높았으며, 이 모형의 설명력은 57.2%이었다<Table 5>.

<Table 5> Factors affecting University Life Adaptation-Self-Esteem (N=88)

| Variable | B | β | t(p) |
|---------------------------|--------------|---------|-------------|
| Constant | .840 | | 3.684(.000) |
| Self Respect | .094 | .151 | 1.483(.142) |
| Relationships with others | .200 | .301*** | 3.753(.000) |
| Leadership and Popularity | .274 | .358*** | 3.770(.000) |
| Self-Assertiveness | .120 | .164 | 1.805(.075) |
| R^2 | .572 | | |
| $F(p)$ | 27.677(.000) | | |

진로정체감의 하위요인 중 대학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진로정보($\beta=.361, p=.001$)이었고, 이 모형의 설명력은 22.6%이었다<Table 6>.

<Table 6> Factors affecting University Life Adaptation- Career Identity (N=88)

| Variable | B | β | t(p) |
|---------------------|-------------|---------|--------------|
| Constant | 2.234 | | 11.403(.000) |
| Goals | .052 | .097 | .803(.424) |
| Interests & Talents | .069 | .124 | 1.095(.277) |
| Career Information | .197 | .361** | 3.345(.001) |
| R^2 | .226 | | |
| $F(p)$ | 8.167(.000) | | |

전공만족도의 하위요인 중 대학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일반만족($\beta=.547, p=.001$)으로 나타났고, 이 모형의 설명력은 31.3%이었다<Table 7>.

<Table 7> Factors affecting University Life Adaptation- Major Satisfaction (N=88)

| Variable | B | β | t(p) |
|---------------------------------------|-------------|---------|-------------|
| Constant | 1.995 | | 8.701(.000) |
| General Satisfaction | .307 | .547** | 3.553(.001) |
| Acknowledge Satisfaction | -.002 | -.004 | -.029(.977) |
| Curriculum Satisfaction | -.066 | -.113 | -.766(.446) |
| Student-Faculty relation Satisfaction | .106 | .163 | 1.401(.165) |
| R^2 | .313 | | |
| $F(p)$ | 9.473(.000) | | |

자아존중감, 진로정체감 및 전공만족도 각 변수에서 대학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하위요인들이 있었으므로 동시에 투입하여 살펴본 결과는 <Table 8>과 같다. 대학생활적응에는 자아존중감($\beta=.664, p=.000$)과 전공만족도($\beta=.349, p=.000$)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자아존중감의 영향력이 더 컸다. 즉,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전공만족도가 높을수록 대학생활적응이 높음을 확인하였으며, 모형의 설명력은 68.7%이었다<Table 8>.

<Table 8> Factors affecting University Life Adaptation (N=88)

| Variable | B | β | t(p) |
|--------------------|--------------|---------|--------------|
| Constant | .335 | | 1.598(.114) |
| Self-Esteem | .597 | .664*** | 10.487(.000) |
| Career Identity | .020 | .030 | .398(.692) |
| Major Satisfaction | .233 | .349*** | 4.617(.000) |
| R^2 | .687 | | |
| $F(p)$ | 61.541(.000) | | |

4. 논의

본 연구는 아동영양교육학과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자아존중감, 진로정체감, 전공만족도 및 대학생활적응간의 관련성과 영향력을 알아보고 신설학과로서 학생들의 효과적인 대학생활적응을 돕기 위한 학생지도 및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를 제공하고자 시행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자아존중감, 진로정체감, 전공만족도 및 대학생활적응 간에는 모두 유의한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대학생활적응과 가장 상관관계가 높은 것은 자아존중감, 전공만족도 및 진로정체감

순이었다.

자아존중감의 하위 요인 영역별 점수가 본 연구에서 타인과의 관계, 지도력과 인기, 자기존중, 자기주장 순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유아교육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이[4]의 연구와 김[3]의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와도 일치한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 자아존중감의 하위요인 중 대학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지도력과 인기, 타인과의 관계 순으로 나타났다. 유치원 교사는 유아를 가르치며 지도하는 교육자로서 적합한 인성과 적성, 적법한 자격과 자질이 요구되는데 유아들에게 교육적 모델로서 교사의 자아존중감은 교사의 전반적인 역할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로 볼 때 대상자의 자아존중감을 높이기 위한 교수자와 학생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이나 밀접한 관계증진과 함께 학과 동료 및 친구들과의 상호작용과 교류를 증진시키기 위한 상담이나 역량강화프로그램 등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진로정체감 총점의 평균은 2.87점이었고, 가장 높은 하위요인은 진로정보 3.01점, 목표 2.95점, 흥미와 재능 2.58점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또한 진로정체감의 하위요인 중 대학생활적응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진로정보이었다.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김[20]의 연구에서 진로정체감 총점 평균은 2.50이었고 이에 비해 본 연구의 대상자는 이보다 더 높은 점수를 보였고, 전공만족도, 실습만족도, 간호학과 진학동기 및 졸업 후 진로 등이 진로정체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조[12]의 연구에서는 성적 위주로 전공을 선택한 학생에 비해 본인의 적성과 성향에 따른 높은 목표의식을 갖고 스스로 결정한 학생이 진로정체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볼 때 대학에서는 전공과 실습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교육과정구성, 근무여건이 좋은 곳을 실습장으로 활용 후에 취업으로 연결시키는 시스템 구축, 친밀한 교수제자관계 및 교육환경을 제공해야 한다. 진로계획이나 진로선택시에 자기이해, 직장에서 요구하는 직무역량 등의 정확하고 다양한 진로 정보를 제공하여 진로결정 등의 역량을 증진시킬 수 있는 진로관련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할 뿐만 아니라 고등학교에서도 성적위주보다는 적성과 성향에 따른 진로탐색 훈련을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전공만족도는 소속된 학과가 자신의 기대치와 일치하는 정도가 높을수록 전공만족도는 높아지는데[7]. 본 연

구에서는 총점의 평균이 3.32점이었는데, 가장 만족도 점수가 높은 하위요인은 학생-교수간 관계 만족도로 3.58점이었고, 교과만족도 3.37점, 일반만족도 3.31점, 인식만족도 3.18점의 순이었다. 전공만족도는 대학생활적응과 높은 상관관계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으며, 또한 전공만족도의 하위요인 중에서는 대학생활적응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일반만족 분야이었다. 이에 따라 다양하고 체계적인 전공과목 구성, 효율적인 학습법 개발, 교수자의 전공분야에 대한 깊은 지식과 뚜렷한 목표 제시, 스터디그룹 등의 결성으로 학생들의 학습방법에 대한 정보공유, 초청강연회를 통한 취업관련 정확한 정보 제공 및 전공 공부에 몰입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 등을 제공하고, 또한 아동영어교육학과 전공분야에 맞는 다양한 현장 실습을 3학년부부터 추진하여 직업에 대한 실무능력과 현장적응력을 높여 나갈 때 결과적으로 재학생들의 전공만족도는 높아질 것으로 사료된다.

대학생활적응은 학생들이 총체적인 대학생활의 요구에 효율적으로 대처하는 적절한 반응을 뜻하며[9,10], 본 연구에서 대학생활적응에는 자아존중감과 전공만족도가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들의 성공적인 대학생활적응을 위해서는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기간에 학과에 대한 사전지식을 효과적으로 제공하여 학과에 대한 흥미와 동기 부여, 선후배간 또는 교수와의 일대일 멘토링 프로그램 제공, 동아리활동이나 사회봉사활동 등의 소그룹 만남을 통하여 관계를 형성시키고 보다 바람직한 진로설계를 하도록 도와주는 등의 학생들의 자아존중감과 전공만족도를 높여 효과적인 대학생활적응을 유도하는 아동영어학과 특성에 맞는 역량강화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고 하겠다[12]. 또한 학생들의 학습능력 향상을 위해 선후배 또는 동년배간 스터디 그룹을 운영하고, 더 나아가 전공탐색, 진로탐색 및 계발에 관련하여 학습법 전문가 초청으로 효과적인 학습법을 익힐 수 있도록 고려해야 한다.

유아영어교육방법과 유아영어교사의 실태를 조사한 김과 유[21]의 연구에서는 교사의 자질분야에 관하여 유치원에서는 유아교육과정과 유아발달지식을 요구하였고, 어린이집에서는 유아영어교육 이론과 교수방법이 중요하다고 하였으며, 또한 유아영어교사에 대한 만족도는 각각 60%이었다. 이를 살펴볼 때 효율적인 조기 영어교육의 성공은 우수한 아동영어교사 확보여부가 관건이라

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대상자가 속해 있는 D대학 아동영 어교육과 교과과정에서 인성교육, 보육교육, 영어교육 및 실습교육이 강화되었고, 모든 학생들은 재학중 Junior TESOL 자격증과 함께 보육교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한 전공필수 교과목을 이수해야한다. 이를 통해 아동 교육자로서의 인격적 기본소양을 배양하고, 졸업 후 아동영어교육뿐만 아니라 초중등 영어교육, 통번역, 공무원, 승무원 및 비즈니스 등 폭넓은 분야에 진출할 수 있는 영어 전반에 대한 지식을 갖추도록 교육하고 있다. 재학생들에게는 폭넓은 교과과정을 소화하는 것이 힘들 수 있으며, 이에 많은 학생들이 본 연구자와의 상담을 통해 고충을 토로하고 있다. 대학생활적응은 학과나 전공뿐만 아니라 개인적, 사회적 관계 등 다양한 생활에 적응을 해야 하는 것으로 학생들은 이로 말미암아 많은 스트레스, 우울감, 학습에 대한 흥미 상실로 인한 성적불량, 대학의 면학분위기 저해 및 자신에 대한 신뢰감 상실 등의 많은 문제를 야기할 수 있어서 학생들에 대한 높은 관심과 따뜻한 격려로서 어려움을 극복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다[22]. 이외에도 본 연구대상자의 10%를 차지하는 동남아 지역 외국 유학생의 소속감 증진을 위해 한국인 학생과의 동아리 활동을 통하여 문화생활, 진로 개발활동, 독서 토론 및 봉사활동, 전공탐색 등을 장려한다면 유학생의 대학생활적응력을 증진시킬 뿐만 아니라 추후 국내에 급증하는 이주민의 아동교육까지도 담당해야하는 아동영어교육학과 학생들의 문화적응력 함양에도 기여하는 바가 클 것으로 생각된다. 재학생들이 입학부터, 재학, 졸업뿐만 아니라 졸업후에도 관리하는 평생학습 지원사업 활성을 위한 평생학습사회 대학모델 구축 및 운영을 통해 만족스런 대학생활이 진행되어 학업중단율을 감소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본 연구의 의의는 일 대학 아동영어교육학과 재학생들의 자아존중감, 진로정체감, 전공만족도 및 대학생활적응간에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음과, 또한 대학생활적응에는 자아존중감과 전공만족도가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규명한 것이다. 본 연구를 바탕으로 융복합 교육시대적 요구에 의해 신설된 아동영어교육학과와 학과경쟁력을 제고해보고 학과발전 및 학생지도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하여 학생들의 자아존중감과 전공만족도를 높여 효과적인 대학생활적응을 유도하는 역량강화프로그램 개발의 기초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는

일대학 아동영어교육학과 재학생들만을 대상으로 하여 연구의 일반화에 한계가 있으므로 향후 연구에서는 전국 의 아동영어교육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반복적 후속연구와 함께 더욱 심도 있는 질적 연구가 수행될 필요가 있다.

REFERENCES

- [1] Korea Institute of Childcare and Education. (2014). *Estimation Study on Children's Education and Childcare Expenses II*.
- [2] Rosenberg, M. (1965). *Society and the adolescent self-image*.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3] Kim, J. E. (2010). *Relationship among Self-esteem, Subjective Happiness, and Educational Faith on Pre-service Early Childhood Teachers*. Unpublished master's thesis, Yeungnam University.
- [4] Lee, H. K. (2014).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elf-esteem and the satisfaction with major of college students in the early childhood education", *J. Young Child Studies*, 17, 27-43.
- [5] Holland, J. L., & Holland, J. E. (1977). Vocational indecision: More evidence and speculation.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24(5), 404- 414.
- [6] Lee, J. H. (2013). The Relationship Between Clusters of Career Identity and Career Resilience and the Career Maturation of College Students", *J.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13(2), 39-59.
- [7] Kim, K. H., & Ha, H. S. (2000). A Study of Department Satisfaction Factors of Undergraduate Students. *Th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1(1), 7-20.
- [8] Son, B. H., Kim, Y. M., & Jun, I. G. (2011). A Study on Nursing Students Job-esteem, Work Values, and Satisfaction of their Major. *Korean Journal of Occupational Health Nursing*. 20(3), 240-249.
- [9] Baker, R. W., & Siryk, B. (1984). Measuring adjustment to college. *Journal of Counselling Psychology*, 31(1), 179-189.

- [10] Kim, H. W. (2005). *The relationship between family system patterns and career decision-making and adjustment to college*. Unpublished master's thesis, Sookmyung Women's University.
- [11] Kang, Y. S., & Hwang, S. (2013). Correlation of Self-esteem, Major satisfaction and Career motivation in College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4(7), 3301-3309.
- [12] Cho, I. Y. (2014). The Relationship of Career Identity, Major Satisfaction and College Adaptation of Nursing Freshmen. *J.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5(5), 2937-2945.
- [13] Coopersmith, S. (1967). *The antecedents of self-esteem*. Consulting Psychologists Press.
- [14] Kang, J. K. (1986) *Effects of self-concept, career maturity and school achievement upon occupational status aspiration*. Unpublished master's thesis, Seoul National University.
- [15] Holland, J. L., Daiger, D. C., & Power, P. G. (1980). *My vocational situation*. Palo Alto, CA : Consulting Psychology Press.
- [16] Kim, B. H. (1997). *Career decision level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of the college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Seoul National University.
- [17] Kwon, Y. H., & C. N. Kim. (2002). Effect of a ready planned self growth program through MBTI on interpersonal relationships and the career identity of nursing college students. *Journal of Korean Community Nursing*, 13(2), 216-229.
- [18] Lee, D. J. (2004). *The relationships among satisfaction in major, gender identity, and gender stereotypes of male nursing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Yonsei University.
- [19] Hyun, J. W. (1992). *The effect of perfectionism and evaluative threat on the performance of task*. Unpublished Master's thesis, Yon-sei University.
- [20] Kim, N. K. (2012). *Patterns of Career Choice and Career Identity of Students in Nursing*. Unpublished master's thesis, Aju National University.
- [21] Kim, M. H. & Yu, Y. O. (2012). Actual Practices

of Young Children's English Education Method and English Teacher in Kindergartens and Day care centers. *The Journal of Child Education*, 21(4), 153-168.

- [22] Ha, H. S. (2000). *A study of department satisfaction and school satisfaction of undergraduate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Seoul National University.

김 윤 주(Kim, Yun Joo)



- 2000년 2월 : 전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유아교육학과(이학석사)
- 2014년 3월 ~ 현재 : 동신대학교 아동영어교육학과 조교수
- 관심분야 : 유아교육, 보육과정
- E-Mail : yunjk5467@naver.com

김 윤 영(Kim, Yoon Young)



- 2005년 8월 : 전남대학교 대학원 간호학과(간호학석사)
- 2009년 8월 : 전남대학교 대학원 간호학과(간호학박사)
- 2015년 3월 ~ 현재 : 광양보건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 관심분야 : 지역사회간호학, 노인간호, 성인간호
- E-Mail : dove4678@hanmail.net

이 송 미(Lee, Song Mi)



- 1999년 2월 : 전남대학교 대학원 식품영양학과 (이학석사)
- 2006년 2월 : 전남대학교 대학원 식품영양학과 (이학박사)
- 2014년 3월 ~ 현재 : 동신대학교 식품영양학과 조교수
- 관심분야 : 식품영양학, 영양교육,
- E-Mail : smlee@dsu.ac.kr